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4호 2012년 12월 pp.63~85
한국세무학회

이연법인세자산 부채의 유동성 구분 조정에 관한 연구*

김상기**

<요 약>

미래기간의 법인세 절감액 또는 납부액을 의미하는 항목인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실현가능성과 실현시기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측정상의 어려움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있어 그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현시기의 반영에 대해서는 정보의 비용이 효익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실현시기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측정상의 문제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상장기업들에게 적용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 표시는 법인세회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이 기업들의 유동비율의 조정 등과 관련된 재무보고유인에 따라 영향을 받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에 유동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재무보고 유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동비율을 상향조정할 재무보고 유인이 높은 기업일수록 당기 발생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의 일차자기상관계수(first order autoregressive coefficients)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을 조정하여 유동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수록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의 실현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을 조정하여 유동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으로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을 제외한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이 높은지의 여부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의 일차자기상관계수가 더 커지며 모형의 설명력도 유의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을 조정하여 유동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으로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을 제외한 유동비율과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대한 수요가 많은지의 여부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의 일차자기상관계수가 더 커지며 모형의 설명력도 유의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 정도, 재무보고 유인

*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부교수, skkim2420@kicpa.or.kr, 02-6361-1938

I. 서 론

이연법인세는 미래기간에 발생할 법인세부담액과 관련된 항목으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실제로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의 증가 또는 감소로 실현되는 시기는 구성 항목별로 차이가 있다. 그 실현시기가 장기일수록 미래기간의 법인세부담액의 증가 또는 감소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 간의 차이는 커지게 된다. 자산과 부채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현재가치에 의하여 그 장부금액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대해서는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명목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신뢰성 있게 현재가치로 할인하기 위해서는 각 일시적 차이의 소멸시점을 상세히 추정하여야 하는데 많은 경우 소멸시점을 실무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추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기간에 발생할 법인세부담액의 증가 또는 감소의 명목금액으로 표시되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이 현재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장부금액에는 상당한 측정상의 오류가 있게 된다. 이러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측정상의 문제점은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중 단기간 내에 실현될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의해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중 단기간 내에 실현될 명목금액은 현재가치와 차이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이의 정도를 추론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의 측정상의 오류의 일부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전인 2010년까지 적용되었던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한국의 상장기업들은 2005년부터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중 유동항목을 비유동항목과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여 왔다. 그런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에 대한 정보가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측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전액 비유동자산(부채)로 구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일부를 유동자산(부채)로 구분하는 경우 기업의 재무정보 중 영향을 받게 되는 대표적인 것은 유동비율이다. 유동비율을 좋게 보이게 하려는 재무보고 유인이 있는 기업들로 인해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이 중요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인세회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선행 연구들은 유동비율을 포함한 재무비율의 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Lev 1969, Lee와 Frecka 1983, Lee와 Wu 1988, 석기준 1996). 유동비율의 중요성과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分的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에 대한 조정을 통해 유동비율을 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동비율의 조정이라는 재무보고 유인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동비율 조정과 관련된 재무보고유인을 강화시키는 기업들의 특성들에 대해서도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그러한 기업특성변수로는 부채비율, 미래의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대한 수요를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2011년부터 한국의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이원화 되었으며, 한국의 상장기업들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하는 반면에 한국의 비상장기업들은 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 적용하고 있거나 2011년부터 적용할 한국의 상장기업들은 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대한 유동성구분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재무보고 유인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구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본 논문의 실증연구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分的 유용성과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구분 여부에 대한 기업회계기준들의 서로 다른 규정을 재검토하는데 있어서도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시기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연법인세회계에서의 측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II. 선행연구

재무제표를 좋게 보이게 하려는 재무보고유인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재무제표의 항목 중 회계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에는 회계이익 외에도 다양한 항목들이 있으며 이들 항목들은 회계이익이 제공하는 정보를 보완해 주거나 회계이익이 제공할 수 없는 다른 측면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들의 재무보고유인을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회계이익 이외의 회계수치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연법인세와는 관련이 없지만 회계이익 외의 회계수치에 대한 조정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있었으며, 이연법인세를 이용한 부채비율의 조정 현상을 분석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Lev(1969)는 미국의 기업들이 재무비율을 해당 기업이 속한 업종의 평균 재무비율로 조정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의 시차변수로 이용되는 부분조정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기업들의 재무비율이 업종 평균비율로 조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기업의 유동비율과 업종 평균 유동비율 간의 차이는 1년에 약 50%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와 Frecka(1983)는 재무비율의 조정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일반함수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부분조정모형과 비교하였다. 유동비율, 당좌비율,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 배당금, 매출총이익률, 총자산이익률, 총자산회전율의 7개 재무비율을 4개로 범주화하고 이를 일반함수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재무비율이 주기적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분조정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재무비율이 주기적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와 Wu(1983)는 재무비율의 주기적 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의 정형화를 위해 부분조정모형과 일반비율조정모형을 비교 연구하였다. 두 가지 모형을 이용하여 유동비율, 당좌비율, 총부채 대비 자기자본비율, 채고자산회전율, 총자산 대비 매출액 비율, 총자본이익률의 6개 재무비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일반비율조정모형이 단순부분조정모형 보다 재무비율의 동적 조정형태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기업규모와 업종차이가 재무비율의 조정속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기준(1996)은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부분조정모형을 사용하여 주기적 조정가설을 검증하였다. 6개 재무비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기업들은 유동비율을 산업의 표준비율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유동비율이 유동항목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른 재무비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단기간 내에 적은 조정비용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Gordon과 Joos(2004)는 영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연법인세회계를 이용한 기업의 레버리지 관리 여부를 분석하였다. 영국은 한때 이연법인세회계에 대해 부분적 인식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이 부분적 인식 방법에서는 예측가능한 미래 기간에 역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연법인세 잔액만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이연법인세의 항목 중 기록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갖게 된다. 즉 이연법인세부채(자산)를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은 이익과 자본을 증가(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분석 결과 영국 기업의 경영자들이 그들의 레버리지(자본을 증가시킴으로써)를 관리하는데 그들의 재량을 기회주의적으로 사용하지만 이익의 유연화를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과 관련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이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

서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이 왜곡된다면 그 정보로서의 가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연법인세와 관련하여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은 선행연구들에서 이미 분석된 바 있다. 기업들이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 재무보고를 위한 임시적 세무조정 등을 이용하여 법인세비용 및 당기손익을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된다. Frank와 Rego(2006)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충당금의 변동 중 재량적인 변동은 재무분석가의 예측치에 도달하기 위한 이익 조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기근(2011)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도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이용해 재무분석가의 예측치에 도달하는 것은 물론 적자회피나 회계이익감소회피를 위한 이익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상현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하는 세무조정에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발생원인인 일시적 차이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본 연구의 주제인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은 당기손익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익의 조정을 위해 이연법인세를 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관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유동비율이라는 재무상태의 구성에 대한 것이다. 유동비율은 재무상태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재무지표로 경영자의 관점에서는 이를 조정할 유인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¹⁾ 석기준(1996)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들은 유동비율을 산업의 표준비율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유동비율이 유동항목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른 재무비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단기간 내에 적은 조정비용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Lev(1969)는 만일 개별기업과 산업평균 재무비율 간의 차이에 명백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산업평균과 개별기업의 재무비율 간의 차이는 투자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므로 기업들이 산업의 평균비율을 하나의 목표비율로 삼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유동비율의 중요성과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에 대한 조정을 통해 유동비율을 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유동비율의 조정을 위해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그 정보로서의 가치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동비율의 조정을 위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에 대한 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기업들이 유동비율을 산업의 표준비율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석기준(1996)의 연

1) 유동비율은 신용평가회사들의 신용평가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구 결과와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동비율의 조정에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유동비율을 높이기 위해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조정을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는 금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 정도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즉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조정하여 유동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큰 기업일수록 유동비율을 높이기 위해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 정도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조정하여 유동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에 대해서는 Kahneman과 Tversky(1979)의 프로스펙트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프로스펙트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결과치(outcome)에 대해 가치(value)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설정된 준거점(reference point)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이익으로, 이에 미달하는 경우 손실로 인식하게 되며, 이익에 비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더 많은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즉 가치함수는 준거점을 기준으로 S자 형태의 비대칭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이러한 프로스펙트 이론에 따르면 준거점에 약간 미달할 경우 효용의 감소가 다른 구간에 비해 크다. 산업표준비율을 하나의 준거점으로 가정하면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조정하여 유동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에 약간 미달하는 기업들에서 더 높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에 약간 미달하는 집단의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 정도는 더 낮을 것이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을 이용하여 유동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유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그러한 유인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변수들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을 이용하여 유동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유인은 주로 기업의 자금조달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동비율은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에 해당되므로 자금의 공급자의 관점에서는 자금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유동비율을 주요한 지표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자금의 회수가능성과 관련하여 기업의 장기적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부채비율이 주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상환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유동비율과 함께 부채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유동비율에 대한 조정은 부채비율의 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다. 즉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유동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 클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2>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에 약간 미달하는 집단의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 정도는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에 더 낮아지게 된다.

유동비율이 기업의 단기적인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유동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은 기업의 자금조달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기업의 자금조달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을 이용하여 유동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유인은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3>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에 약간 미달하는 집단의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 정도는 자금조달 필요성이 클수록 더 낮아지게 된다.

IV. 연구방법

1. 가설 1의 검증모형

본 연구에서는 유동비율의 조정을 위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에 약간 미달하는 집단의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 정도는 더 낮을 것이라는 가설 1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의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1차 시계열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증가시켜 유동비율을 높이 고자 하는 조정이 있는 경우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는 1년 이내에 실현되어 소멸되지 않을 금액이 포함되게 되어 전기말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 중 해당 금액이 그대로 당기말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 남아있게 된다. 이는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조정이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1차 시계열 상관관계에 영향을 주게 됨을 의미한다.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1차 시계열 상관관계 외에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으므로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1차 시계열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 종속변수는 실제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서 예측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차감한 비기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사용하기로 한다. 즉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에 약간 미달하는 집단의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 정도는 더 낮을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모형 1을 이용하기로 한다.

$$UCDT_t = \alpha + \beta_1 CDT_{t-1} + \beta_2 CRD_{t-1} * CDT_{t-1} + \beta_3 DEBT_t + \beta_4 TA_t + \sum \beta YEAR + \epsilon \quad (\text{모형 1})$$

변수의 정의

UCDT_t : t기말 비기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

CDT_{t-1} : t-1기말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t-1기말 자산총계

CRD_{t-1} : 유동비율을 상향조정할 재무보고 유인이 높은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 수로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의 90% 이상 100% 미만 구간에 속하는 경우 1, 그 외의 경우 0

DEBT_t : t기말 부채총계/t기말 자산총계

TA_t : t기말 자산총계의 자연로그 값

YEAR : 연도더미

모형 1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1차 시계열 자기상관관계에 기초하고 있다.²⁾ 관심변수는 유동비율을 상향조정할 재무보고 유인이 높은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인 CRD이다. 유동비율의 조정과 관련된 재무보고 유인은 유동비율을 산업표준비율과 같은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조정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Kahneman과 Tversky(1979)의 프로스펙트 이론에 따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재무비율을 평가함에 있어 산업표준을 하나의 준거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을 약간 미달하는 기업이 산업표준을 약간 상회하는 기업에 비해 유동비율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 높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업종별로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의 90% 이상 100% 미만인 기업들의 집단을 나타내는 변수를 유동비율을 상향조정할 재무보고 유인이 높은 기업들을 나타내는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변수 CRD를 측정하고자 한다. 유동비율과 관련된 재무보고유인에 있어 목표치에 해당되는 산업표준비율로는 보고기간인 t-1기의 실제 산업 평균비율이 알려지기 전이므로 그 예측치에 해당되는 t-2기의 산업 평균비율을 이용하였다.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에 약간 미달하는 집단의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 정도는 더 낮을 것이라는 가설 1에 따라 CDT_{t-1}과의 상호작용변수인 CRD_{t-1} * CDT_{t-1}의 계수인 β_2 는 양(+)의 값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할 수

2) 이 검증 모형과 관련하여 비기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정확히 측정되었다면 (비기대이므로) t기와 t-1기 간 비기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상관성이 없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1차 시계열 자기상관관계는 없어야 할 것이라는 심사의견이 있었다. 기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추정하는 모형의 설명변수에 전기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이 포함되게 된다면 심사의견에서와 같이 t기와 t-1기 간의 상관성이 없어야 할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추정하는 모형에서는 전기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이 설명변수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관관계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의 기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추정 모형에서 전기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설명변수로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1차시계열 상관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있다. 모형 1에는 기업의 일반적인 위험 수준과 규모 등을 통제하기 위해 부채비율과 총자산을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모형 1의 종속변수인 비기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자산총계로 조정한 실제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서 다음의 모형을 이용하여 해당 산업별 연도별로 계산한 기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차감한 것이다.

$$CDT_t = \alpha + \beta_1 SEC_t + \beta_2 \Delta SEC_t + \beta_3 AI_t + \beta_4 \Delta AI_t + \beta_5 INV_t + \beta_6 \Delta INV_t + \beta_7 AR_t + \beta_8 \Delta AR_t + \beta_9 NCDT_{t-1} + \epsilon$$

변수의 정의

- CDT_t : t기말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t-1기말 자산총계
- SEC_t : t기말 단기투자증권/t기말 자산총계
- ΔSEC_t : t기 단기투자증권증감/t기말 자산총계
- AI_t : t기말 미수수익/t기말 자산총계
- ΔAI_t : t기 미수수익증감/t기말 자산총계
- INV_t : t기말 재고자산/t기말 자산총계
- ΔINV_t : t기 재고자산증감/t기말 자산총계
- AR_t : t기말 매출채권/t기말 자산총계
- ΔAR_t : t기 매출채권증감/t기말 자산총계
- $NCDT_{t-1}$: t-1기말 비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t-1기말 자산총계

기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설명변수로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선행연구(이준규 외 2001)에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구성요소들 중 단기간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 유가증권, 재고자산, 미수수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과 관련된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다. 자산총계로 조정한 단기투자증권의 수준과 변동을 나타내는 SEC_t 와 ΔSEC_t , 자산총계로 조정한 재고자산의 수준과 변동을 나타내는 INV_t 와 ΔINV_t , 자산총계로 조정한 미수수익의 수준과 변동을 나타내는 AI_t 와 ΔAI_t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기로 한다. 추가로 유동자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매출액의 대용치이기도 한 자산총계로 조정한 매출채권의 수준과 변동을 나타내는 AR_t 와 ΔAR_t 도 설명변수에 추가하였다. 또한 전기의 비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 중 그 실현시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경우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 대체될 수 있으므로 자산총계로 조정한 전기말 비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 $NCDT_{t-1}$ 도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2. 가설 2의 검증모형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조정하여 유동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큰 집단의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 정도는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에 더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으로는 모형 1을 변형한 다음과 같은 모형을 이용할 수 있다.

$$UCDT_t = \alpha + \beta_1 CDT_{t-1} + \beta_2 CRD_{t-1} * DRD_{t-1} * CDT_{t-1} \\ + \beta_3 CRD_{t-1} * CDT_{t-1} + \beta_4 DEBT_t + \beta_5 TA_t + \sum \beta YEAR + \epsilon \quad (\text{모형 2})$$

변수의 정의

UCDT_t : t기말 비기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

CDT_{t-1} : t-1기말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t-1기말 자산총계

CRD_{t-1} : 유동비율을 상향조정할 재무보고 유인이 높은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의 90% 이상 100% 미달 구간에 속하는 경우 1, 그 외의 경우 0

DRD_{t-1} : t-1기말 부채비율이 높은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DEBT_t : t기말 부채총계/t기말 자산총계

TA_t : t기말 자산총계의 자연로그 값

YEAR : 연도더미

이 모형은 모형 1의 독립변수 중 유동비율을 상향조정할 재무보고 유인이 높은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인 CRD_{t-1}과 CDT_{t-1}의 상호작용변수에 부채비율이 높은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DRD를 추가로 곱한 것이다. 부채비율이 높은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인 DRD는 부채비율이 표본의 중위수 이상인지의 여부로 측정하기로 한다.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에 약간 미달하는 집단의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 정도는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에 더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가설 2에 따라 CRD_{t-1} * DRD_{t-1} * CDT_{t-1}의 계수인 β₂는 양(+)의 값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 가설 3의 검증모형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에 약간 미달하는 집단의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 정도는 자금조달 필요성이 클수록 더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으로는 모형 1을 변형한 다음과 같은 모형을 이용할 수 있다.

$$UCDT_t = \alpha + \beta_1 CDT_{t-1} + \beta_2 CRD_{t-1} * CFFD_t * CDT_{t-1} \\ + \beta_3 CRD_{t-1} * CDT_{t-1} + \beta_4 DEBT_t + \beta_5 TA_t + \sum \beta YEAR + \epsilon \quad (\text{모형 3})$$

변수의 정의

UCDT_t : t기말 비기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

CDT_{t-1} : t-1기말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t-1기말 자산총계

CRD_{t-1} : 유동비율을 상향조정할 재무보고 유인이 높은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의 90% 이상 100% 미달 구간에 속하는 경우 1, 그 외의 경우 0

CFFD_t : t기의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대한 수요가 많은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DEBT_t : t기말 부채총계/t기말 자산총계

TA_t : t기말 자산총계의 자연로그 값

YEAR : 연도더미

이 모형은 모형 1의 독립변수 중 유동비율을 상향조정할 재무보고 유인이 높은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인 CDT_{t-1} 과 CDT_{t-1} 의 상호작용변수에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대한 수요가 많은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CFFD를 추가로 곱한 것이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대한 수요가 많은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CFFD는 재무활동 현금흐름이 양의 값을 가지는지의 여부로 측정하기로 한다.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에 약간 미달하는 집단의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 정도는 자금조달 필요성이 클수록 더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가설 1-2에 따라 $CRD_{t-1} * CFFD_t * CDT_{t-1}$ 의 계수인 β_2 는 양(+)의 값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4. 표본선정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에 대한 조정을 통한 유동비율 조정 유인과 관련된 본 연구의 가설들을 검증함에 있어 분석 대상 기간은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이 적용되기 시작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이 중 2005년의 자료는 2006년 자료와의 1차 시계열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사용된다. 가설 1부터 가설 3까지의 검증모형에서 사용될 종속변수인 비기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추정하는데 사용될 표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비금융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연도이다.

첫째, 결산일이 12월말인 기업

둘째, 자본이 잠식되지 않은 기업

셋째, 중분류 기준의 산업별로 기업의 수가 15개 이상인 기업

넷째,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재무제표에 표시한 기업-연도

다섯째, 한국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에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이러한 표본 선정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 기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표본은 1,976기업-연도이다.

이들 표본 중 가설 1부터 가설 3까지의 검증에 사용된 표본은 유동비율을 상향조정할 재무보고 유인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의 90% 이상 100% 미달 구간에 속하는 163기업-연도와 이들 표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비율을 상향조정할 재무보고 유인이 낮을 것으로 추정되는 100% 이상 110% 미달 구간에 속하는 149기업-연도로 총 312기업-연도이다.³⁾

3) 연구의 표본과 관련하여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에 약간 미달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구간으로 유동이연법인

V. 연구결과

1.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검증 모형 1의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은 <표 1>과 같다.

<표 1> 검증 모형1의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

패널 1. 전체표본(표본수 312)					
변수	평균	표준편차	25%	중위수	75%
UCDT _t	0.00020	0.00620	-0.00272	-0.00036	0.00235
CDT _{t-1}	0.00472	0.00759	0	0.00263	0.00714
DEBT _t	0.48622	0.16101	0.37320	0.47582	0.59579
TA _t	26.73004	1.45039	25.63632	26.51323	27.65651
패널 2.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의 90% 이상 100% 미달 구간에 속하는 표본(표본수 163)					
변수	평균	표준편차	25%	중위수	75%
UCDT _t	-0.00012	0.00673	-0.00289	-0.00074	0.00176
CDT _{t-1}	0.00489	0.00695	0.00003	0.00280	0.00781
DEBT _t	0.50687	0.15933	0.41283	0.50436	0.60511
TA _t	26.86387	1.36900	25.76477	26.64866	27.87662
패널 3.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의 100% 이상 110% 미달 구간에 속하는 표본(표본수 149)					
변수	평균	표준편차	25%	중위수	75%
UCDT _t	0.00056	0.00557	-0.00251	0.00009	0.00313
CDT _{t-1}	0.00453	0.00825	0	0.00250	0.00658
DEBT _t	0.46363	0.16032	0.34805	0.44870	0.57244
TA _t	26.58364	1.52568	25.45950	26.31034	27.52276

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의 90% 이상 100% 미달 구간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심사의견이 있었다. 심사의견의 지적과 같이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에 약간 미달되거나 약간 상회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표준 유동비율에 대한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의 비율의 구간별 빈도수분석에 따르면 0.8~0.9 구간의 빈도수가 가장 많았으며, 0.9~1.0 구간의 빈도수가 그 다음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구간에 대한 분석을 고려하게 되었으며 두 구간 모두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UCDT_t$: t기말 비기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
 CDT_{t-1} : t-1기말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t-1기말 자산총계
 $DEBT_t$: t기말 부채총계/t기말 자산총계
 TA_t : t기말 자산총계의 자연로그 값

<표 1>의 패널 1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패널 2는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의 90% 이상 100% 미달 구간에 속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패널 3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의 100% 이상 110% 미달 구간에 속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전체표본의 경우 비기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인 UCDT의 평균은 0.00020로 양의 값을 나타냈지만 중위수는 -0.00036으로 음의 값을 나타냈다.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의 90% 이상 100% 미달 구간에 속하는 표본의 경우 UCDT의 평균(-0.00012)과 중위수(-0.00074) 모두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는 실제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이 예측모형에 의해 계산된 기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의 100% 이상 110% 미달 구간에 속하는 표본의 경우 UCDT의 평균(0.00056)과 중위수(0.00009) 모두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표본의 경우 자산총계로 조정한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인 CDT의 평균과 중위수는 0.00472와 0.00263으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표본들의 유동이연법인세자산이 유동이연법인세부채에 비해 더 큰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의 90% 이상 100% 미달 구간에 속하는 표본의 경우 CDT의 평균(0.00489)과 중위수(0.00280)가 모두 전체표본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의 100% 이상 110% 미달 구간에 속하는 표본의 경우 CDT의 평균(0.00453)과 중위수(0.00250)가 모두 전체표본에 비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표본의 경우 자산총계 대비 부채비율인 DEBT의 평균과 중위수는 0.48622와 0.47582로 나타났다.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의 90% 이상 100% 미달 구간에 속하는 표본의 경우 DEBT의 평균(0.50687)과 중위수(0.50436)가 모두 전체표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의 100% 이상 110% 미달 구간에 속하는 표본의 경우 DEBT의 평균(0.46363)과 중위수(0.44870)가 모두 전체표본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표본의 경우 자산총계의 자연로그 값인 TA의 평균과 중위수는 26.73004와 26.51323으로 나타났다.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의 90% 이상 100% 미달 구간에 속하는 표본의 경우 TA의 평균(26.86387)과 중위수(26.64866)가 모두 전체표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의 100% 이상 110% 미달 구간에 속하는 표본의 경우 TA의 평균(26.58364)과 중위수(26.31034)가 모두 전체표본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의 90% 이상 100% 미달 구간에 속하는 집단과 100% 이상 110% 미달 구간에 속하는 집단의 기업특성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자산총계로 조정한 당기순이익인 NI의 경우 90% 이상 100% 미달 구간에 속하는 집단의 평균은 0.02803으로 100% 이상 110% 미달 구간에 속하는 집단의 평균 -0.01507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총계로 조정한 당기순이익의 증가인 ΔNI 의 경우 90% 이상 100% 미달 구간에 속하는 집단의 평균은 -0.01623으로 100% 이상 110% 미달 구간에 속하는 집단의 평균 0.03523보다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총계 대비 부채총계의 비율인 DEBT의 경우 90% 이상 100% 미달 구간에 속하는 집단의 평균은 0.51437로 100% 이상 110% 미달 구간에 속하는 집단의 평균 0.47702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총계로 조정한 재무활동 현금흐름인 CFF의 경우 90% 이상 100% 미달 구간에 속하는 집단의 평균은 0.03741로 100% 이상 110% 미달 구간에 속하는 집단의 평균 0.02476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유동비율을 상향조정할 재무보고 유인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기업특성 차이

기업특성변수		평균	t값
NI_{t-1}	$CRD_{t-1} = 1$	0.02803	0.726
	$CRD_{t-1} = 0$	-0.01507	
ΔNI_{t-1}	$CRD_{t-1} = 1$	-0.01623	-1.256
	$CRD_{t-1} = 0$	0.03523	
$DEBT_{t-1}$	$CRD_{t-1} = 1$	0.51472	2.292**
	$CRD_{t-1} = 0$	0.47702	
CFF_t	$CRD_{t-1} = 1$	0.03741	0.795
	$CRD_{t-1} = 0$	0.02476	

NI_{t-1} : t-1기의 당기순이익/t-1기말 자산총계

ΔNI_{t-1} : t-1기의 당기순이익증감/t-1기말 자산총계

$DEBT_{t-1}$: t-1기의 부채총계/t-1기말 자산총계

CFF_t : t기의 재무활동 현금흐름/t기말 자산총계

CRD_{t-1} : 유동비율을 상향조정할 재무보고 유인이 높은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의 90% 이상 100% 미달 구간에 속하는 경우 1(표본수 163), 100% 이상 110% 미달 구간에 속하는 경우 0(표본수 149)

2. 상관분석

본 연구의 검증 모형 1의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표 3>과 같다.

<표 3> 검증 모형 1의 주요 변수들의 상관계수

변수	UCDT _t	CDT _{t-1}	DEBT _t	TA _t
UCDT _t	1			
CDT _{t-1}	0.31114***	1		
DEBT _t	0.12905**	0.16207***	1	
TA _t	0.04340	0.07242	0.12662**	1

UCDT_t : t기말 비기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

CDT_{t-1} : t-1기말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t-1기말 자산총계

DEBT_t : t기말 부채총계/t기말 자산총계

TA_t : t기말 자산총계의 자연로그 값

*** : 유의수준 1%, ** : 유의수준 5%, * : 유의수준 10%

자산총계의 자연로그 값인 TA_t를 제외하고는 모든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비기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 UCDT_t와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UCDT_t와 독립변수인 자산총계로 조정한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 CDT_{t-1}의 상관계수는 0.31114로 독립변수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시계열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종속변수인 UCDT_t와 독립변수인 자산총계 대비 부채비율 DEBT_t의 상관계수도 0.12905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는 CDT_{t-1}과 DEBT_t, 그리고 DEBT_t와 TA_t의 상관계수가 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내는 반면 CDT_{t-1}과 TA_t의 상관계수는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 1의 검증결과

본 연구의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 모형 1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산총계로 조정한 t-1기의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 CDT_{t-1}의 계수는 0.15821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심변수인 CRD_{t-1} * CDT_{t-1}의 계수는 0.17228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유동비율을 상향조정할 재무보고 유인이 높은 경우 t-1기의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과 t기의 비기대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의 관련성이 더 높아져 일차자기상관계수가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에 약간 미달하는 집단의 유동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실현 정도는 더 낮을 것이라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로 사용된 자산총계 대비 부채비율 $DEBT_t$ 와 자산규모 TA_t 의 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검증 모형 1의 회귀분석 결과

$$UCDT_t = \alpha + \beta_1 CDT_{t-1} + \beta_2 CRD_{t-1} * CDT_{t-1} + \beta_3 DEBT_t + \beta_4 TA_t + \sum \beta YEAR + \epsilon$$

변 수	계 수	t값
상수	-0.00448	-0.723
CDT_{t-1}	0.15821	2.850***
$CRD_{t-1} * CDT_{t-1}$	0.17228	2.270**
$DEBT_t$	0.00286	1.322
TA_t	0.00006	0.252
수정 R^2	0.10880	
F값	5.746***	
표본수	312	

$UCDT_t$: t기말 비기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

CDT_{t-1} : t-1기말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t-1기말 자산총계

CRD_{t-1} : 유동비율을 상향조정할 재무보고 유인이 높은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유동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의 90% 이상 100% 미달 구간에 속하는 경우 1(표본수 163), 100% 이상 110% 미달 구간에 속하는 경우 0(표본수 149)

$DEBT_t$: t기말 부채총계/t기말 자산총계

TA_t : t기말 자산총계의 자연로그 값

YEAR : 연도더미

*** : 유의수준 1%, ** : 유의수준 5%, * : 유의수준 10%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 1에서는 프로스펙트 이론에 따라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에 약간 미달되거나 약간 상회하는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의 90% 이상 100% 미달 구간에 속하는 표본과 100% 이상 110% 미달 구간에 속하는 표본만을 그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조정하여 유동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보다 광범위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의 80% 이상 100% 미달 구간에 속하는 표본과 100% 이상 120% 미달 구간에 속하는 표본으로 표본을 확대하여 분석하였다. 확대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표본을 확대한 경우의 검증 모형 1의 회귀분석 결과

변 수	계 수	t값
상수	-0.00445	-1.093
CDT_{t-1}	0.24437	6.371***
$CRD_{t-1} * CDT_{t-1}$	0.00873	0.181
$DEBT_t$	0.00103	0.732
TA_t	0.00010	0.677
수정 R^2	0.11767	
F값	11.035***	
표본수	603	

$UCDT_t$: t기말 비기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

CDT_{t-1} : t-1기말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t-1기말 자산총계

CRD_{t-1} : 유동비율을 상향조정할 재무보고 유인이 높은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유동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의 80% 이상 100% 미달 구간에 속하는 경우 1(표본수 331), 100% 이상 120% 미달 구간에 속하는 경우 0(표본수 272)

$DEBT_t$: t기말 부채총계/t기말 자산총계

TA_t : t기말 자산총계의 자연로그 값

YEAR : 연도더미

*** : 유의수준 1%, ** : 유의수준 5%, * : 유의수준 10%

<표 4>의 결과와는 달리 관심변수인 $CRD_{t-1} * CDT_{t-1}$ 의 계수는 0.00873로 양의 값을 가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구분에 있어 유동비율의 조정을 위한 재무보고유인의 영향은 광범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가설 2의 검증 결과

본 연구의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 모형 2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관심변수인 $CRD_{t-1} * DRD_{t-1} * CDT_{t-1}$ 의 구성요소인 부채비율이 높은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DRD_{t-1} 은 부채비율이 중위수 이상인 경우 1, 그 외의 경우 0의 값을 갖는 것으로 하였다. $CRD_{t-1} * DRD_{t-1} * CDT_{t-1}$ 의 계수는 0.24578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만을 고려한 검증 모형 1에 대한 회귀분석에서의 $CRD_{t-1} * CDT_{t-1}$ 의 계수 0.17228에 비해 더 큰 양의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증 모형 1의 회귀분석결과와 검증 모형 2의 회귀분석결과와의 잔차 제곱합의 차이에 대한 F값은 3.847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유동이연법인세자

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에 약간 미달하는 집단의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 정도는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에 더 낮아지게 된다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검증 모형 2의 회귀분석 결과

$$UCDT_t = \alpha + \beta_1 CDT_{t-1} + \beta_2 CRD_{t-1} * DRD_{t-1} * CDT_{t-1} + \beta_3 CRD_{t-1} * CDT_{t-1} \\ + \beta_4 DEBT_t + \beta_5 TA_t + \sum \beta YEAR + \epsilon$$

변 수	계 수	t값
상수	-0.00468	-0.760
CDT _{t-1}	0.15745	2.849***
CRD _{t-1} * DRD _{t-1} * CDT _{t-1}	0.24578	1.971**
CRD _{t-1} *CDT _{t-1}	-0.00069	-0.006
DEBT _t	0.00185	0.833
TA _t	0.00008	0.366
수정 R ²	0.11720	
F값	5.588***	
표본수	312	

UCDT_t : t기말 비기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

CDT_{t-1} : t-1기말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t-1기말 자산총계

CRD_{t-1} : 유동비율을 상향조정할 재무보고 유인이 높은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유동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의 90% 이상 100% 미달 구간에 속하는 경우 1, 100% 이상 110% 미달 구간에 속하는 경우 0

DRD_{t-1} : 총자산대비 부채비율이 중위수 이상인 경우 1, 그 외의 경우 0

DEBT_t : t기말 부채총계/t기말 자산총계

TA_t : t기말 자산총계의 자연로그 값

YEAR : 연도더미

*** : 유의수준 1%, ** : 유의수준 5%, * : 유의수준 10%

5. 가설 3의 검증 결과

본 연구의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 모형 3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관심변수인 CRD_{t-1} * CFFD_t * CDT_{t-1}의 구성요소인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인 CFFD_t는 t기의 재무활동 현금흐름이 양의 값을 갖는 경우 1, 그 외의 경우 0의 값을 갖는 것으로 하였다. CRD_{t-1} * CFFD_t*CDT_{t-1}의 계수는 0.2672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

비율만을 고려한 검증 모형 1에 대한 회귀분석에서의 $CRD_{t-1} * CDT_{t-1}$ 의 계수 0.17228에 비해 더 큰 양의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증 모형 1의 회귀분석결과와 검증 모형 3의 회귀분석 결과의 잔차 제곱합의 차이에 대한 F값은 5.488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에 약간 미달하는 집단의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 정도는 자금조달 필요성이 클수록 더 낮아지게 된다는 가설 3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검증 모형 3의 회귀분석 결과

$$UCDT_t = \alpha + \beta_1 CDT_{t-1} + \beta_2 CRD_{t-1} * CFFD_t * CDT_{t-1} + \beta_3 CRD_{t-1} * CDT_{t-1} + \beta_4 DEBT_t + \beta_5 TA_t + \sum \beta YEAR + \epsilon$$

변 수	계 수	t값
상수	-0.00403	-0.656
CDT_{t-1}	0.15747	2.858***
$CRD_{t-1} * CFFD_t * CDT_{t-1}$	0.26726	2.360**
$CRD_{t-1} * CDT_{t-1}$	0.00672	0.065
$DEBT_t$	0.00220	1.016
TA_t	0.00005	0.232
수정 R^2	0.12204	
F값	5.804***	
표본수	312	

$UCDT_t$: t기말 비기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

CDT_{t-1} : t-1기말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t-1기말 자산총계

CRD_{t-1} : 유동비율을 상향조정할 재무보고 유인이 높은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유동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의 90% 이상 100% 미달 구간에 속하는 경우 1, 100% 이상 110% 미달 구간에 속하는 경우 0

$CFFD_t$: 총자산으로 조정한 재무활동현금흐름이 (+)인 경우 1, 그 외의 경우 0

$DEBT_t$: t기말 부채총계/t기말 자산총계

TA_t : t기말 자산총계의 자연로그 값

YEAR : 연도더미

*** : 유의수준 1%, ** : 유의수준 5%, * : 유의수준 10%

VI. 결 론

법인세회계의 주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미래기간의 법인세 절감액 또는 납부액을 의미하는 항목으로 측정상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대표적인 측정상의 어려움은 실현가능성과 실현시기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있어 그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현시기의 반영에 대해서는 정보의 비용이 효익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실현시기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측정상의 문제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상장기업들에게 적용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 표시는 법인세회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이 기업들의 유동비율의 조정 등과 관련된 재무보고 유인에 따라 영향을 받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에 유동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재무보고 유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유동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들에 있어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정도가 낮아지는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에 대한 조정과 관련된 재무보고유인을 강화시키는 기업들의 특성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즉 부채비율의 정도, 미래의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대한 수요가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에 대한 조정과 관련된 재무보고유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에 유동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재무보고 유인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동비율을 상향조정할 재무보고 유인이 높은 기업일수록 당기 발생 요인들을 통제된 후에도 유동이연법인세자산의 일차자기상관계수(first order autoregressive coefficients)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 중 실현되지 않은 부분은 소멸되지 않고 기말의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 남아 있게 될 것이므로 기초의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정도가 낮을수록 일차자기상관계수가 높아지게 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유동비율을 상향조정할 재무보고 유인이 높은 기업일수록 유동이연법인세자산의 일차자기상관계수가 더 커지는 것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에 약간 미달하는 집단의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 정도는 더 낮을 것이라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유동이연법인세자산의 일차자기상관계수가 더 커지는 현상은 유동비율을 상향조정할 재무보고 유인이 높은 기업의 범위를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의 90% 이상 100% 미달 구간에 속하는 집단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나타났

지만 범위를 넓혀 80% 이상 100% 미달 구간에 속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이 유동비율의 조정 유인에 영향을 받는 정도는 제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조정하여 유동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으로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이 높은지의 여부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의 일차자기상관계수가 더 커지며 모형의 설명력도 유의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에 약간 미달하는 집단의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 정도는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에 더 낮아지게 된다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조정하여 유동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으로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과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대한 수요가 많은지의 여부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의 일차자기상관계수가 더 커지며 모형의 설명력도 유의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제외한 유동비율이 산업표준에 약간 미달하는 집단의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 정도는 자금조달 필요성이 클수록 더 낮아지게 된다는 가설 3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을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게 된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여전히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에 유동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유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을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도록 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타당성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금액의 측정상의 문제는 명확한 것이므로 그러한 문제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 자체를 배제하는 것보다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이 적절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에 유동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재무보고 유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에서 비기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대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추정함에 있어 산업별 연도별 횡단면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기대 모형에는 어느 정도의 측정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김상현 · 배수진 · 심태섭, 2009, “재무보고시점과 세무보고시점의 차이에 따른 이연법인세 공시의 적정성과 기업특성”, 회계학연구 34 (2), 105 – 139.
- 석기준, 1996, “재무비율의 조정과정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25 (4), 225 – 249.
- 손기근, 2011, 이익조정동기와 세무보고특성이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준규 · 김문철 · 김갑순, 2001, “이연법인세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26 (2), 145 – 164.
- Frank, M., and Rego, S., 2006, “Do managers use the valuation allowance account to manage earnings around certain earnings target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8 (Spring), pp.43 – 65.
- Gordon, E., and Joos, P., 2004, “Unrecognized Deferred Taxes: Evidence from the U.K”, *The Accounting Review* 79 (1), pp.97 – 124.
- Kahneman, D., and A. Tversky,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 (2), pp. 263 – 291.
- Lev B., 1969, “Industry Averages as Targets for Financial Ratio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7 (2), pp.290 – 299.
- Lee, C.F., and Frecka, T.J., 1983, “Generalized Financial Ratio Adjustment Processes and Their Implicat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1 (1), pp.308 – 316.
- Lee, C.F., and Wu, C., 1988, “Expectation Formation and Financial Ratio Adjustment Processes”, *The Accounting Review* 63 (2), pp.292 – 306.

A Study on The Current and Non-current Classification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Sang Ki Kim*

—〈Abstract〉—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that imply future tax savings and future tax payments have important measurement difficulties in judgement about possibility and timing of realization.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requires that deferred tax assets should be measured by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realization, but do not requires consideration about timing of realization. The measurement problem of realization timing can be reduced by the current and non-current classification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From 2005 to 2010, the financial statements of Korea listed companies applied the current and non-current classification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provide opportunity to seek for improvement on the measurement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This study reviewed whether the financial reporting incentives affected on the current and non-current classification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The results of review about the effect of the financial reporting incentives on the current and non-current classification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financial reporting incentives to manage the current and non-current classification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the greater first order autoregressive coefficients after controlled the factors of current period. This results means that the higher the financial reporting incentives to manage the current and non-current classification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the lower the realization degree of current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Second, considering debt to asset ratio in addition to current ratio before current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as the financial reporting incentives, the first order autoregressive coefficients of current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and the explanation of model increase significantly. Third, considering the demand for future cash flows from financing in addition to current ratio before current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as the financial reporting incentives, the first order autoregressive coefficients of current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and the explanation of model increase significantly.

〈Key words〉 the current and non-current classification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the realization degree of current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financial reporting incentives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Accounting and Taxation,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